

# 대입전형의 다각적 상호작용 고려해야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매년 입시 현장에서 반복되는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성적이 아니라 전략이다. 많은 수험생은 스스로를 '수시파' 또는 '정시파'로 규정한 뒤 쪽 전형을 완전히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 수시에 집중하며 수능을 내려놓거나, 정시를 준비하며 내신과 학교생활을 방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입은 어느 한 요소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학생부와 수능, 대학별 전형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한 축을 포기하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입시는 단일 전형에 올인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위험관리의 과정이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수능은 필수 경쟁력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물론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상당수는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아무리 뛰어난 학생부를 갖추었다더라도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합격은 불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수시 지원전략 자체도 수능 경쟁력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

이다. 자신의 정시 가능 대학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상향·적정·안정 지원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를 간과하면 정시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대학에 수시 합격하는 이른바 '수시 납치'를 겪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향 지원으로 여섯 장의 기회를 모두 잃을 수 있다.

정시 역시 더 이상 수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최근 주요 대학들은 정시에도 학생부 교과평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학교 수업 참여, 교과 이수, 학업 성실성은 정시에서도 경쟁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포기한 채 수능만 준비하는 극단적 전략은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정시에서는 학생부 감점이 수능 한 문제 이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시 중심 수험생이라도 최소한의 내신 관리와 학교생활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입시는 개인 성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졸업생과 N수생 증가, 자연계 학생들의 사회탐구 선택 확대, 의대 모집인원 변화와 무전공 선발 확대 등 외부 변수는 해마다 합격선을 흔들고 있다. 과거 입결만 믿고 지원하는 방식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실제 점수의 가치와 경쟁 구도는 매년 달라지므로

변화하는 대입 환경을 함께 읽는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정시에서 중요한 기준은 등급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점수라는 사실이다. 상위권 대학은 주로 표준점수를, 중위권 대학은 백분위를 중심으로 선발하며 영어 감점과 탐구 반영 방식도 대학마다 다르다. 같은 성적표라도 대학별 환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등급 비교가 아니라 지원 대학의 반영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자신의 성적대에 맞는 현실적인 실행 전략이다. 내신 경쟁력이 있는 학생은 학생부 관리와 함께 수능 최저 충족을 목표로 수능 학습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반대로 정시가 유리한 학생도 학교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학생부 반영 대학과 논술전형까지 함께 고려하는 복합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까지 수시와 정시의 가능성을 모두 유지하는 학생만이 변화하는 대입 환경 속에서 가장 많은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입시는 한 전형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끝까지 연결하는 전략가에게 가장 높은 합격의 문을 열어준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 이 선수 놓치면 4년 기다린다



김 언 세  
(정책사회부)

새벽 경기를 챙겨 봤다. 마흔을 넘긴 특정 선수의 라스트 댄스라서 아니라, 국경을 맞댄 축구 강국끼리의 맞대결이기에 4시에 알람을 맞췄다.

토너먼트에서 맞닥뜨린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라운드와 관중석엔 긴장감이 상당했고 이베리아반도 경쟁 구도답게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경기가 아니었다. 팽팽한 0의 행진에 연장으로 가는구나 싶던 찰나 후반 추가시간 스페인의 골이 승부를 갈랐다.

사실 TV를 시청하는 내내 좀 많이 부러웠다. 한국과 일본의 16강(예) 경기였으면 어땠을까. 이를 전 세계 축구팬이 지켜보는 상황을 아침 댓바람에 잠시 상상해 본 시간이었

다. 축구 팬들에겐 각 출전국에 기대치가 있을 터. 2026 북미월드컵 개막 전까지 한국은 적어도 카보베르데나 남아공보다는 기대치가 대체로 높았을 것이다. 2023 아시안컵에서의 요르단전 패배는 복선이었을까. 그로부터 3년 뒤 선수들은 멕시코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감독 포함해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는 게 여론이다.

'이 선수 놓치면 4년 기다린다'... 이는 2010 남아공 월드컵 당시 모 일간지 체육면 머리가사 제목이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었다. 독자에게도, 상대 팀에도 적용되는 기막힌 표현이었다. 이제 보니, 선수를 기용하는 코치진에도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지면 제목이다.

한국은 6월25일 남아공전에서 또 하나의 뼈아픈 축구사를 썼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고 벤투 전 한국대표팀 감독의 지적도 나

왔다. 희생양 찾기 일변도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사태 해결에 도움 될 게 없다는 것. 공감한다. 감독을 둘러싼 사태가 마녀사냥이 아닌 환골탈태·전회위복으로 흐르길 기원해 본다.

이제 막 16강 여덟 경기가 마무리됐고 개막 후 한 달간 많은 사건이 있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간담을 서늘케 한 아프리카대륙 서쪽의 섬나라 카보베르데. 이전 대회까지 약체로 평가받던 개최국 캐나다의 놀라운 성장세. 온갖 불이익 받고도 조별리그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이란. 네덜란드 잡은 모로코. 독일을 집으로 돌려보낸 파라과이. 브라질 농락한 노르웨이. 그리고 일본의 경쟁력 등. 7월7일 스페인전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의 호날두 표정에서, 패배 뒤 그라운드를 지그시 바라보던 손흥민의 모습이 교차했다.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9일 (음 5월 2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60년생** 주위사람들 모두가 귀하의 편을 들어줍니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르게 됩니다. **84년생**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됩니다.
- 49년생** 의외의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61년생** 금전, 직장, 이성운 모두 불리합니다. **73년생** 말 실수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85년생** 청천이나 혹은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0년생** 가끔씩의 편안한 휴식은 약이됩니다. **62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74년생** 성실한 자세로 나아가면 더 큰 이익이 보입니다. **86년생** 지출을 좀 줄이세요.
- 51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심합니다. **63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 쓰세요. **75년생** 늘 올바른 자세로 매사에 임하세요. **87년생** 길을 가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 52년생** 모든 일이 원하는대로 잘 풀립니다. **64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76년생** 오늘 귀하의 행운의 숫자는 9번입니다. **88년생**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 53년생**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하는 일이 갈립니다. **65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77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89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 54년생**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66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78년생** 별들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90년생** 새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세요.
- 55년생**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67년생** 재물을 두고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79년생** 주변을 잘 살피고 귀인을 찾으세요. **91년생**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 56년생** 재정문제는 당분간 어려워집니다. **68년생** 꿈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80년생** 유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92년생**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57년생**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69년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1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93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 58년생**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하세요. **70년생** 우연한 기회에 복운을 만나 평온해지겠습니다. **82년생** 물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94년생** 뒷사람한테 안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 59년생** 자존심에 얽매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1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83년생** 좋은 결과를 거두기에는 어렵겠습니다. **95년생**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줄 여건이 못됩니다.



## 김상회의四季 중창 불사

불사(佛事)는 말 그대로 불교와 관련된 일이다. 부처님의 법을 퍼기 위해 법회를 열고 불공을 비롯한 각종 제를 올리거나 경전을 간행하는 일, 크고 작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각을 새로 짓고 중수하는 일과 불상을 조성하는 일 등 불교와 관련된 모든 일을 총칭하는 말이다. 보통은 사찰을 중창하고 전각을 중수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지만, 경내의 탑을 세우거나 경전을 발간하는 일, 이미 조성된 불상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다시 개금불사를 하는 등 불사의 범위는 참으로 다양하다. 우기가 긴 인도는 부처님 당시에 일 년에 한 번 안거에 들어가는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부처님을 비롯한 수행자들이 비를 피하여 수행할 수 있는 수행처를 지어 보시하였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깨달음을 펼치는 과정에 신심 있는 재가자나 왕이 지어 보시한 불교 최초의 사원 즉림정사와 기원정사(祇園精舍)가 그 예이다.

즉림정사는 당시 마가다 왕국의 수도였던 라자그리하의 가란타장자(伽藍陀長者)가 소유하고 있던 대나무 정원을 장자가 불교에 귀의하면서 불교의 승원으로 바쳤고,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범비사라가 가람을 짓게 하였다 고 알려져 있다. 기원정사(祇園精舍)는 역시 당대 재벌에 해당하던 급고독장자가 제다 태자 소유의 숲을 사서 수행에 적합한 정사를 지어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제일 오랜 기간 안거를 보냈던 곳이라 알려져 온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천년 고찰이 관히 생긴 것이 아니다. 필자가 터를 마련하여 주석해오던 서오릉 인근의 월광사 역시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남달랐던 곳인데, 그래서인지 정부의 신사까지 개발계획에 편입되어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음만 먹으면 달려갈 수 있는 도심 속 기도시행처를 바라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9	7	2	9	8	1	6
6	9	8	1	7	6	2	9	
8	1	7	9	8	2	6	2	9
7	8	2	6	8	1	9	9	9
9	9	8	2	6	7	8	1	
1	2	6	9	9	8	7	6	8
9	6	2	8	7	8	1	9	2
2	8	1	8	9	2	6	7	
2	7	9	2	1	6	9	8	8

7			6	9		5	4	1
6		5			3			
9				5				3
	3							2
8		7				6		4
1							8	
	8			7				3
6	2	8	8	2	9	1	9	
6	2	8	8	2	9	1	9	
1	7	9	8	6	9	8	2	2

8	9	2	7	8	2	1	6	9
9	6	1	2	9	8	7	2	8
8	1	7	9	2	9	6	8	2
2	8	8	9	7	6	2	9	1
7	2	9	6	1	2	2	9	8
2	9	6	2	8	1	9	8	7
9	8	2	1	9	2	8	7	6
6	2	8	8	2	9	1	9	
1	7	9	8	6	9	8	2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4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5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